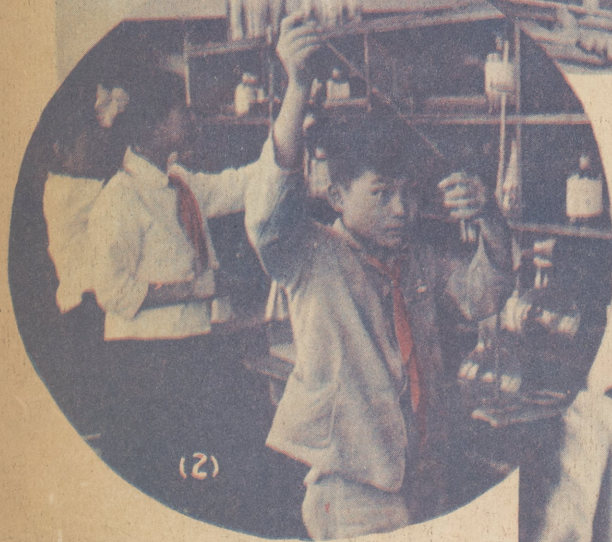
1961. 11

실험과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은 각지 학교 단 크루쇼크원들은 더욱 활기를 띠고 움직이고 있다.

소년단원들은 실습 공장에서 물리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실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쓸모 있고 깊게 다져 나가고 있다.

① 평남 온천 중학교 물리 크루쇼크원들은 못해 보는 실험이 없다. 《물리 종합 실험 기구》를 또 만들어 낸 이들은 지금 물의 리용과 그의 작용을 실험해 보고 연구하는 것이다.

② 이들은 평양시 대흥 중학교 화학 크루쇼크원들이다.

아연에다 유산을 반응 시키면 어떻게 될가? 화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지 실험 해 보는 크루쇼크원들의 이 시간은 가장 귀중하고 흥미 있는 순간이다.

③ 평양시 동성 중학교 물리 크루쇼크원들은 전기 종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배운 지식을 리용해 여러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보고 뜯어 보고 맞추어 본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11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8회)

글 윤 복진
그림 최 순천

이놈의 바위가 다리가 있나?

어린 원수님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린 붉은 애국심은 나날이 자랐습니다.

하루 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한 자, 두 자 더 배우면 배울수록 왜놈과 지주놈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세차게 타 올랐습니다.

더구나 중국 동북에서 돌아 오신 후로는 자나 깨나 빼앗긴 내 나라에 대하여 더욱 가슴 깊이 생각 하셨고 짓밟히는 고향에 대하여 더욱 더 뼈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왜놈들과 맞서 한바탕 싸울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그 날도 창덕 학교 뒤'산 마루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참나무 아래서 동무들과 그 날 배운 우리 나라 력사를 읽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 멀리서 련거퍼 빵빵 요란스러운 자동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원수님은 읽으시던 책을 놓고 일어서 자동차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포 가로에서 조촌으로 뻗은 한적하던 신작로에는 긴 전주를 실은 자동차들이 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칠골 앞으로 전기'줄을 끌어 오려는구나.》 하고 혼자'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한 동무는 어느 사이에 원수님의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야아 참 좋구나, 전기'줄만 뻗어 오면 우리 칠골 동네도 평양 성안처럼 밤에도 대낮처럼 환해지겠구나.》

철 없는 그 동무는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출듯이 좋아하였습니다.

원수님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말 없이 그 동무의 얼굴을 쳐다 보셨습니다.

원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애는 학과 시간에 배운 우리 나라 력사를 무슨 재미난 이야기처럼 졸졸 외우기는 하나 실속 없이 배워 왔구나.》

사실 이 때 왜놈들은 우리 나라 력사를 학과에서 아주 뽑아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일체 우리 나라 력사를 배우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국적인 사상을 품은 사립 학교의 선생님들은 왜놈의 눈을 피하여 학과 시간에도 우리 나라 력사를 몰래 배워주었고 학과 시간 외에도 자주 빼앗긴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하여 배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과 지어는 선생들 까지도 우리 나라 력사를 실지로 피와 살이 되도록끔 가르치지 못하였고 또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서는 학습과 생활이 동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철 없이 좋아하는 그 동무를 보시고 말하셨습니다.

《왜놈들이 늘이는 전기'줄은 조선 사람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거미줄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속이 엉큼한 거미란 놈은 거미줄을 늘여 놓고 날아 다니는 벌레와 나비를 잡아 피를 빨아 먹고 살지 않느냐 왜놈들은 바로 거미와 같이 조선 사람의 피 땀을 빨아 먹는 흡혈귀이다. 그놈들은 전기'줄을 자꾸 늘여 놓고 기름진 조선 쌀을 더 빨리, 더 많이 찧어서 제놈의 나라로 실어 가자는 엉큼한 수작이란다. 전기로 윙윙 공장과 광산을 빨리 돌리여 땅 속에 묻힌 우리 나라의 값 비싼 지하 자원을 몽땅 캐 가자는 도적놈의 행위란다.》

원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조촌 신작로로 내달리는 놈들의 자동차를 증오에 찬 눈으로 한참 바라다 보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악독한 원쑤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기름진 조선의 땅을 사기, 협박, 공갈 등 온갖 강도적 수단과 방법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농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고 10여년 동안에 큰 밑천을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놈들은 조선의 기름진 곡식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련된 밑천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모조리 략탈해 가자는 것입니다. 놈들은 공장과 광산

을 더 많이 세우고 그것을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철'길을 닦고 전선을 거미줄처럼 늘여 나갔습니다.

칠골 마을 앞으로도 조선 사람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놈들의 고압선은 뻗어 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조촌에도 변전소를 세우려고 필요한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그리운 조국에로 배움의 먼 길을 걸어 오시면서 친히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셨고 아버님에게 왜놈들이 노리는 침략의 본질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동무들은 모두들 놀라운 눈으로 원수님을 쳐다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잘 알고 있을가? 선생님보다 못하지 않게 끝잘 이야기하는구나.》

동무들은 저마다들 속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 날 밤이였습니다.

조촌으로 가는 신작로 언덕바지 길에는 전기'대를 실은 자동차, 전기'줄을 감은 커다란 토리를 실은 자동차들이 어둔 밤에 오도 가도 못하고 줄을 지어 뚝 멎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그만 언덕을 에돌아 가는 길 한 복판에 난데 없는 바위'돌 하나가 뻗히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돌은 성난 사람처럼

《이놈들아 더는 못 간다!》 하고 길 한 복판을 막아 서 있었습니다.

놈들은 바위'돌을 치우느라고 끙끙거리며 큰 욕을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놈들은 그만 반 시간 가량이나 달릴 길을 못 달리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언덕 길 아래에 바위'돌 하나가 또 길을 가로 막고 우뚝 앉아 있었습니다.

《칙쇼 또 그 바위'돌로 막아 놨구나!》

놈들은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손실 보게 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위'돌을 아주 먼 데로 굴려 없앤다고 《영차 영차》 하며 지랄들을 하였습니다.

사흘 째 되는 밤이였습니다.

언덕 길 아래 또 그 바위'돌이 길을 가로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놈들은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놈의 바위가 사람처럼 다리가 있나?》

놈들은 속으로 슬그머니 겁도 났습니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부터 언덕 길에는 칼찬 왜놈 순사 한 놈이 지켜 서게 되였습니다.

그놈은 길 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몸 수색까지 하며 별지랄을 다 했습니다.

《어데로 가느냐?》

《무슨 볼 일로 가느냐?》

하고 오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으며 밤낮 없이 꼬박 언덕 길을 지켜 서 있었습니다.

지어는 코를 흘리는 어린 아이들까지 붙들어 놓고 두 눈깔을 휘번득거리며 문군 하였습니다.

이 때 원수님은 창덕 학교 뒤'산 마루에서 시원한 그늘에 앉아 동무들과 즐겁게 학습을 하며 계셨습니다. 해'볕이 쨍쨍 내려 쬐는 더운 날에 언덕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을 흘리며 지키고 서 있는 그놈의 꼬락서니를 멀리서 바라보시고 원수님은 속으로 비웃으시였습니다.

잘 있거라 내 고향 만경대여!

원수님이 그리운 고향 땅에서 배우며 왜놈들의 악독한 침략의 본질을 몸소 느끼시며 가슴 속에 증오의 불'길이 높이 타 번질 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소식이 만경대 고향 집에 전해 왔습니다.

원수님의 아버님이 압록강을 넘어 후창군 포평에 건너 와서 독립 운동을 하시다가 왜놈 순사에게 체포되였는데 묶여 가는 도중에 묘하게 탈주해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 가셨으나 추운 겨울에 닷새 동안이나 밤낮을 산에서 주무시고 또 언 강물을 건느시고 무서운 고문을 당한 것이 도지여 병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였습니다.

밭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접하시자

《어디 이놈들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갔구나!》 하시고 두 발로 땅을 굴렀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라는 것은 무서운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칠골로 사람을 보내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 사건은 벌써 지난 해 겨울에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왜놈들의 감시가 어찌나 심한지 편지로는 소식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떠나는 사람을 찾아 몰래 소식을 전하려니까 그 동안에 겨울도 가고 봄이 되였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아버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화산처럼 터졌습니다.

원수님은 학교 뒤'산에 뛰여 올라가 아버님이 계시는 먼 북쪽을 바라다 보셨습니다. 마음은 태산 준령을 훨훨 넘어 아버님께로 달렸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이 원쑤를 갚으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굳은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이 때 동무들이 이 소식을 알고 뒤'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원수님은 여전히 말 없이 북쪽을 바라보시며 서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아버님한테로 떠나 가려니?》

《래일이라도 당장 떠나 가겠다.》

원수님은 동무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내 이만큼 자랐으니 어디 간들 피 값을 못 하겠니, 살아 생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야 말겠다.》하고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이 때 원수님의 나이는 겨우 열 네 살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시고 원쑤 왜놈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이 굳은 결의를 다지신 그 곳은 오늘 《결의 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 서 있던 큰 참나무는 없어졌으나 사나운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굽일 줄 모르는 어린 참나무 한 그루가 오늘 그 자리에 푸르 싱싱 자라나고 있습니다.

원수님은 그 날로 즉시 만경대 본가 집으로 달려 오셨습니다.

읽으시던 책들과 학습장을 정리하시며 집에 있던 자기의 사진도함께 감추어 버렸습니다.

원수님은 벌써 이 때에 왜놈들을 쳐 부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건사하셨던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시던 전 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가? 내가 나서 자란 아름다운 이 고장을, 나의 선조들이 살았었고 반만년의 찬란한 력사를 가진 나의 조국으로 언제 다시 돌아 올

날이 있을가?》

그 날 밤 원수님은 뼈에 사무치도록 정든 고향과 내 조국을 생각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원수님의 가슴 속에는 수 많은 생각이 줄달음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년 시절에 아버님께서 자기를 무릎 우에 앉히시고 어서 커서 나라의 영웅동이 되라고 하시던 말씀, 어머님께서 자기를 안고 쌍그네를 뛰시며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아버님을 생각하시고 얼른 잠간 자라서 아버님의 원쑤를 갚으라 하시던 말씀, 조국을 멀리 떠나 천 리 먼 남의 나라 땅에서 빼앗긴 내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 되살아 났습니다.

조국을 떠나시던 그 전 날 밤 원수님은 온 밤을 눈을 부치지 못하셨습니다.

먼 동이 환하게 밝아 오자 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 나 만경봉으로 올랐습니다.

그 날 아침 따라 만경봉은 더 없이 아름답고 정다왔습니다.

푸른 숲 속에서 잠을 깨여나 밝은 아침 날을 노래하는 산'새들이며, 바람에 그윽히 풍기는 소나무 향기며, 구수한 고향 땅의 흙냄새며, 붉은 아침 노을을 온 몸에 담고 노래하며 흘러가는 푸른 대동강 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정다왔습니다.

보고 보고 또 보아도 고향 산천은 정말 아름답고 정다왔습니다.

잘 있거라, 내 고향

아침 해 밝아 오는
만경봉아 잘 있거라

내가 심은 진달래야
너도 그래 잘 있거라

눈보라 몰아 내고
우리 새 봄 불려 오마

대동강 푸른 물아
너도 그래 잘 있거라

아름다운 내 고향
노래 노래 불러라

원쑤 왜놈 쳐 부시고
우리 새 봄 찾아 오마

(만경대 시초 중에서)

참으로 마음은 날개나 돋힌듯이 아버님께로 훨훨 달렸으나 발'길은 정든 고향 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리 고개를 넘으실 때 다시 한 번 정든 고향 집을 돌아 보셨습니다.

봄'바람에 하느적이는 파란 수양버들 실가지 사이로 바라다 보이는 낯 익은 초가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다왔습니다.

그 집은 비록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작은 초가집이였으나 어디를 가나 꿈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고향 집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유년 시절을 이 집에서 즐겁게 씩씩하게 보내셨고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며 자랐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우리 글을 처음 배우셨고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붉은 마음을 배우셨습니다.

《나는 언제 다시 그리운 고향 집으로 돌아 오나? 언제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세상을 만나 네 활개를 치며 살아 보나?…》

원수님은 남리 고개를 넘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뼈 속에까지 새겨진 그리운 고향 집은 어디를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또 가도 정든 고향 집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만경대에서 평양으로 나가는 길은 한적한 오솔'길이였습니다.

오솔'길에는 낮으막한 고개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개'길은 하나하나가 다 낯 익고 정든 길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이 고개들을 넘고 넘어 칠골 외가'집으로 찾아 가셨고 창덕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토요일이면 이 고개들을 넘어 아름다운 만경대로 그리운 고향집으로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정든 고개들을 넘어 설 때마다 낯 익은 그 길을 돌아 보셨습니다.

고향을 뜨겁게 사랑하는 원수님은 낯익고 정든 고향 길에서는 어쩐지 발'길이 더디여 멀어지는 고향'길을 자주 돌아 보시군하였으나 고향'길을 멀리 떠나 오게 되자 발'길은 나는듯이 가벼웠습니다.

병석에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날개라도 돋힌 것처럼 훨훨 날아 가고 싶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강을 건너 원수님은 천 리 먼 길을 나는듯이 걸었습니다.

원수님은 한 시 바삐 아버님을 만나 뵙겠다는 생각에서 피곤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압록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봄을 맞은 압록강 푸른 물은 한결 더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압록강의 푸른 물소리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어 멀리 떠나 온 고향과 이 강만 건느면 오래'동안 밟지 못할 조국 땅이 살뜰히도 그리웠습니다.

원수님은 나루'터에서 지나 온 조국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말 없는 산천 초목도 그지없이 정답게 넓은 가슴에 안겨 왔습니다.

《이렇게 살뜰한 조국 땅이 원쑤놈의 더러운 발'굽에 짓밟힌단 말인가?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내 손으로 반드시 찾고야 말리라! 내 기어이 아버지의 원쑤를 몇 천 배, 몇 만 배로 갚으리라!》

그 후 원수님은 그 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 네 살 때 조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 때 나는 그 누군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조국에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가?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된 후에야 오겠는데 그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것을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고동칠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말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우리의 나날은 끝 없이 즐겁고 보람차다. 이 행복한 오늘의 조국을 위해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긴긴 세월을 두고 그 얼마나 많은 산과 들과 강을 주름 잡아 다니며 피어린 투쟁을 했던가!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사랑하는 조국,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을 내다 보며 청춘도 생명도 오직 혁명에 바쳐 싸웠다.

아래에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고동 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남긴 말씀을 소개한다.

(1)

《… 나는 이제 몇 시간 밖에 생명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아무 꺼리낌도 없소, 나처럼 자유를 구속 당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 사업하고 래일도 계속 싸울 동무들이 있다는 것과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우리의 혁명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사형장으로 나가려 하오,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혁명을 위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더 살고 싶었소!》

(사형 직전에 쓴 권 영벽 선생의 편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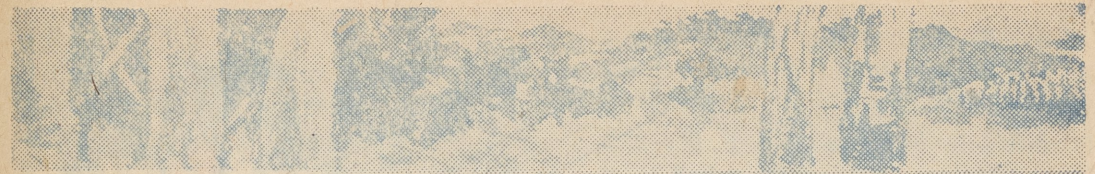
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울리는 말인가! 권 영벽 선생은 죽음을 눈 앞에 두고도 혁명이 승리한 오늘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오늘의 우리들을 눈 앞에 선히 그려 보며 이 심장의 기록을 남기시였다. 이 절절한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는 가슴마다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아담한 아빠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해'살 밝은 창'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흥겨운 아동 공원에서 뛰여 놀 수 있는 것도 모두 혁명 투사들의 피로서 얻어진 행복인 것이다.

언제 어느 때나 잊지 말자! 조국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지켜 나가자! 혁명 투사들이 목숨으로 찾아 준 귀중하고 또 귀중한 우리의 행복을!

배워 나가자! 혁명 승리를 굳게 믿고 떳떳이 싸워 나아간 권 영벽 선생의 빛나는 혁명 정신을!

(2)

《나의 어머니 조국이여! 부디 잘 있으라! 비록 조국에서 수 천리 이 곳 북만에서 죽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조국의 품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최후의 순간에도 나의 상념은 오직 조국으로만 한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의 위대한 조국이여! 공산당이여! 나는 그대의 동요할 줄 모르는 아들을 자랑합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 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항일 빨찌산 지대장 박 길송 동지가 사형 직전에 한 말씀)

조국! 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가!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 없이 바친 박 길송 지대장! 사랑하는 우리 조국, 이를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혁명 투사들이 싸움터에서, 감옥에서, 교수대에서 쓸어져 갔던가! 조국이 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 래일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혁명 투사 박 길송 지대장은 이 조국을 위해 공산주의를 위해 그처럼 웃으며 자기의 청춘을 바친 것이다. 지켜 나가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 조국을!

(3)

《동포 여러분! 우리에게는 김 일성 장군이 계시고 나날이 장성하는 우리 빨찌산들이 있습니다. 왜놈들과 주구놈들에 의하여 집을 불살리웠고 부모를 학살당한 어린 아이들도 모두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느 놈도 막지 못합니다. 왜놈들과 주구들을 몰살 시키고 우리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꼭 그날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왜놈들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소와 헌병대에 불을 지르고…》

(공청원 리 순희 동지가 사형 직전에 한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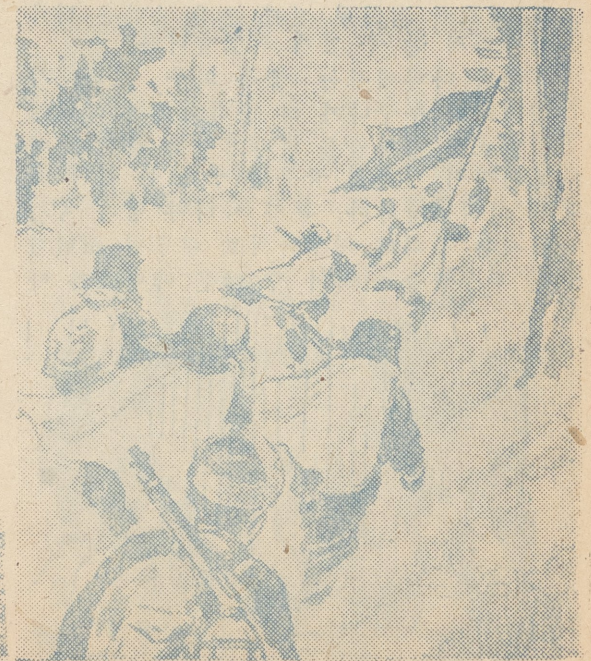
김 일성 원수님에 의하여 교양된 나어린 공청원 리 순희 누나의 이 불 같은 웨침은 우리의 가슴을 두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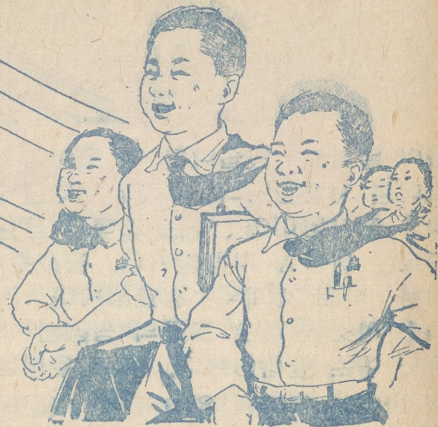
이는 승리의 노래! 희망의 노래인 것이다.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제국주의 원쑤놈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리 순희 누나의 이 심장의 웨침은 꺼질줄 모르는 노래로 영원히 전하여 질 것이다.

누나는 우리에게 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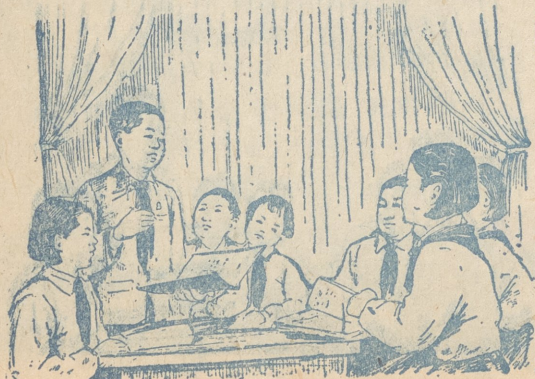
하나로 뭉치인 인민의 힘은 꺾을 자 없다. 인민은 오늘도 래일도 그리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제국주의 원쑤 무리들의 멸망은 멀지 않았다.

원쑤를 더욱 미워하고 그 놈들을 족쳐 버리자!

지식 있고 교양 있고 몸이 튼튼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자!

김 일경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얼마 전에 기쁘고 자랑찬 승리자의 명절 조선 로동당 네번째 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지난 기간 전체 조선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우리들 앞에 휘황 찬란한 앞길을 밝혀 주시였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전체 조선 인민은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누구나가 다 중학교까지 다니게 되였으며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에서는 철따라 외투까지도 내주며 소년단원 동무들을 위하여 수 많은 야영소와 아동 궁전, 아동 공원, 극장,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참말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소년들에 대하여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기간 동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 《꼬마 완충기 계획》 활동,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 등 나라와 사회주의 건설을 돕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토끼를 기르고 피마주, 해바라기를 잘 가꾸어 《소년호 렬차》, 《소년호 기중기》와 수십대의 《소년호 자동차》, 《소년호 뜨락또르》 등을 사회주의 건설장과 농촌에 보내였으며 학습과 생활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활짝 꽃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수 많은 학교 분단들이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를 받았으며 해주시 사미 중학교 김 민자 동무를 비롯한 44명의 소년단원들이 영예롭게도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당의 충실한 아들 딸로 자라기 위하여 힘써 온 동무들의 노력에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남쪽 땅의 어린이들은 어떠합니까. 수 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은 고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학교에 가야 할 80 여 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학비가 없어 학교 문밖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어린이들의 이러한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무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를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당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과학 문화의 새 성과들을 잘 배우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동무들과 집단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15 개 성상 모진 고난을 무릅쓰고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겼으며 오늘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귀중한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고 바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와 같은 혁명 선렬들이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배우고 본받아 그 뜻을 빛나게 이어 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은 서로 돕고 뒤떨어진 동무를 이끌어 화목하게 지내며 집단을 위한 일에 남먼저 나서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만경대》, 《아동단》,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항일 유격 투쟁과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책들을 빠짐 없이 읽으며 혁명 선렬들의 고상한 공산주의 품성을 배우며 본받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잘 배워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였습니다.

학습은 소년단원들의 본신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더욱 열심히 배워 지식을 넓고 깊게 다지어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여야 합니다. 오늘 동무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실험실과 공작실까지 꾸려진 훌륭한 학교에서 충분한 교과서와 학용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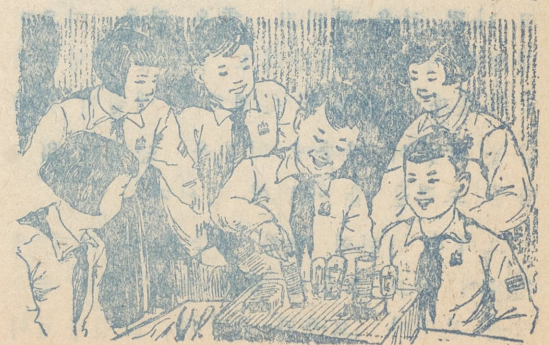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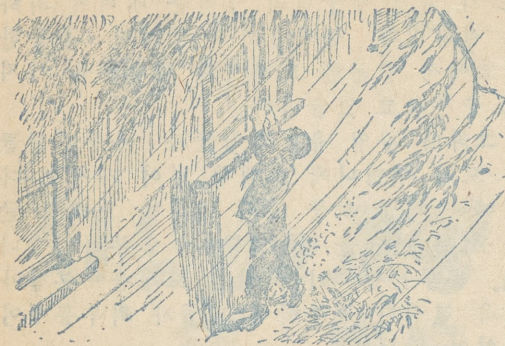
그러나 항일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은 모래 주머니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행군 도중 휴식 때마다 모래에 글을 쓰는 련습을 하여 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와 같은 모범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여 공부하며 집에 돌아 가서는 그날 배운 것을 반드시 복습하여 그날로 완전히 알도록하며 학교를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예 서적, 과학 서적, 참고 도서 등을 많이 읽고 각종 크루쇼크에 참가하여 자기의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 사회 재산을 사랑하며 례절이 바르고 문명한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로동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낳게 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공산주의 사회도 로동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동을 사랑하며 학교에서 토끼 기르기,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 등 생산 로동과 사회에 리익을 주는 유익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무들은 강계 중학교 김 경섭 동무처럼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

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 동무는 몹씨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요란한 바람 소리에 잠을 깨게되자 교실의 창문이 바람에 깨여질 것이 근심되여 새벽 2시에 학교에 달려 나와 열려있는 창문을 닫고 집에 돌아 갔습니다.

그러면 이 동무는 어떻게 되여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 경섭 동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학교 그리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 모든 것이 나라와 인민의 재산이며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 학교의 책상, 의자는 물론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원들은 항상 정직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따르며 부모와 동생을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며 웃어른과 선생님을 존경하며 례절이 밝고 몸을 깨끗이 거두며 의복을 단정히 입고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좋은 일 하기》에 힘쓰며 서로 그릇된 점을 고쳐 주고 좋은 점을 본받아 모두가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공부도 잘 하고 몸도 튼튼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하고 좋은 기술을 배웠다고 하여도 몸이 허약하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어떤곤난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용감한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끝마친 후 달리기도 하고 축구, 배구, 롱구도 하며 수영, 등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춤도 추며 인민 체력 검정의 모든 종목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부도 잘 하며 교양도 있고 몸이 튼튼하고 항상 명랑한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이상에서와 같이 모든 사업들을 더 잘 하기 위하여서는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모두가 영예로운 《모범 분단》 칭호를 꼭 쟁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나는 동무들이 소년단 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당의 참다운 아들 딸로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 중학교 단 제 6분단 《모범 분단》에서

김 준규

그림 김 성엽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시고
....

《거 참 멋있군!》

아름다운 사리원의 거리거리를 오가던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경암산에서 들려 오는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우립니다. 이 아름답고 힘찬 노래는 경암 중학교 6분단 64 명 동무들의 피리 합주입니다.

제 4 차 당 대회 결정을 받들고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배우며 본받는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범 분단》의 자랑 드높이 휘황한 래일을 노래하며 억세게 자라고 있습니다.

달라진 마음

반실에서 돌아 온 리 관모 동무는《붉은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관모네 반에서는 공부하기 전에 늘 회상기 모임부터 하는데 오늘은 《배움의 첫 걸음》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시도 잘 랑송하고 작문도 잘 짓는 리 봉주 동무가 목청을 다듬어 읽었습니다. 벌써 여러번 읽고 또 읽어 왔지만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공부하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모습이 읽을수록 뜨겁게 안겨 옵니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책도 종이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처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행복할수록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을 생각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며 공부에 힘써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자고 했습니다.

관모는《붉은 수첩》의 첫 장을 번지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은 일입니다. 3반에 있는 김 길훈 동무가

《울 아버지가 사 주셨어.》

하면서 줄이 간 새 학습장을 척척 써 내려 가는 것이였습니다. 관모는

《나도 중학생이 됐는데 인젠 좋

은 학습장을 써야지.》하고 길훈의 학습장을 부러워 했습니다. 관모는 어머니를 단단히 졸라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날 관모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그는 방안에 들어 서자 마자 저 혼자 좋아서 씽긋 웃고는《어머니 나 멋 있는 학습장 사 주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관모는 학교에 갔다 온 인사를 하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산건 다 썼니.》 하고 어머님은 사 줄 생각이 아니였습니다.

관모는 찌푸둥 해졌습니다.

《어머니두 길훈이랑 얼마나 좋은 학습장을 쓰는지 아세요?》 하고 관모는 홱 돌아서 울상을 했습니다. 이날 관모는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도 듣지 않고 떼를 썼습니다.

이렇던 관모의 마음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붉은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늘의 조국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들은 종이가 없어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글을 썼다.

그런데 나는 학습장, 연필, 철필 그리운 게 없이 다 있으면서 우등도 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도 더 좋은 학습장만 사달라고 조르며 어머니의 심부름조차 듣지 않고 떼를 썼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관모는《붉은 수첩》을 덮으면서 한장의 종이 한 토막의 연필도 아껴 쓰며 열심히 공부하여 꼭 최우등생이 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후 분단 위원장인 김 용훈 동무는 한 주일 동안 혁명 전통 학습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관모네 반에 찾아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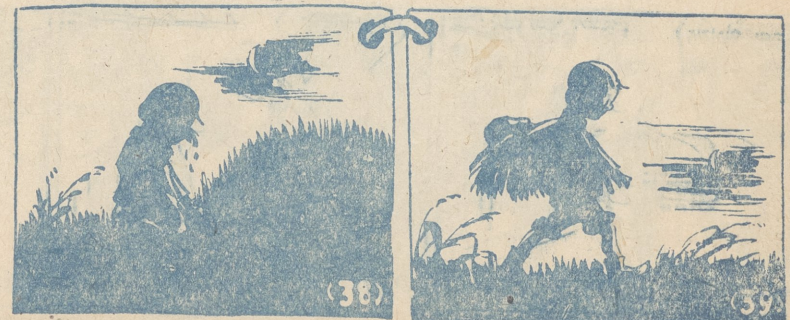
이 반 동무들의《붉은 수첩》마다에는《배움의 첫걸음》을 학습한 후 날마다 달라져 가는 반 동무들의 모습이 일일히 적혀 있었습니다.

용훈이는 관모의《붉은 수첩》을 읽으면서 글씨가 좀 잘못 되

여도 학습장을 쭉쭉 찢어 버리거나 채 쓰지 않은 연필도 막 버리는 동무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 생각되였습니다.

그래 용훈이는 분단 위원들과 의논하고 잡지《소년단》 6 호의《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짚신과 책상》을 다음 주일 분단의 혁명 전통 연구 모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연구 모임 날 용훈이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삼아 주시는 짚신을 오래 신기 위해 짚신 바닥을 늘 물에 적시여 신으셨다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이야기 하면서 아직 분단 동무들에게는 학용품을 랑비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이 있은 후 분단 동무들의《붉은 수첩》마다에는 학습장, 철필 촉 등 학용품을 아끼며 공부에 힘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히여 갔습니다.

부지런한 동무들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경암동 22반 마을을 말끔히 청소하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 6분단 3반 동무들이였지요.

그중에는 저녁마다 북 1동 마을 집집을 찾아 다니며 전등을 끄고 주무시게하는 리 명도 동무도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짬짬이 교실과 운동장을 살피며 일을 찾아 합니다.

제 4 차 당 대회 문헌을 학습하면서 더욱 착하고 부지런한 소년단원이 되자고 했거든요.

그들은 이런 모범을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게서 열심히 배웁니다.

황 순희 선생의 회상기《리 화순 동무의 최후》를 가지고 연구 모임을 가진 날은 토요일이였습니다.

이날 분단 동무들은 리 화순 누나가 아동단원의 영예를 빛내여 혁명 임무에 충실한 것 처럼《모범 분단》이 되면서 결의한 것을 더욱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 일요일에 모두 나와서 교실을 더 멋있게 꾸리자고 했습니다. 《모범 분단》인 이 분단 교실은 언제나 깨끗하지만 그러나 더 아름답게 꾸리자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일을 해놓고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해 내는 동무들이거든요.

1반 동무들은 반실에 돌아 와서 《리 화순 동무의 최후》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반 동무들의 눈앞에는 분단원들의 옷차림을 일일이 돌봐 주는 리 화순 누나의 부지런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토벌대》놈들이 온다는 정보를 받고 집집마다 뛰여 다니며 마을 사람에게 어서 피난 가라고 알리는 모습이며 불속에 쌓인 어린애를 업고 산으로 뛰여 오르는 누나의 용감한 모습도 떠 올랐습니다.

반 동무들은 리 화순 누나처럼 혁명에 충직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며 부지런히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자기네 마을을

더 깨끗이 청소해 놓자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에 분단 교실 대 청소를 멋있게 하자고 한 분단 모임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오늘 밤에 가서 제꺽 해치우자꾸나》 누구인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날 분단 동무들은 교실에 들어 서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 바닥과 책상이 거울처럼 닦아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가 한 일일가?》 하고 모두들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을 청소를 하고 곧 돌아오겠다. 교실 청소는 우리가 다 해놓았으니 오늘은 반별 체육 대회나 하자꾸나》 분단 동무들은 용훈 동무의 책상 우에 이런 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그것이 1반 동무들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반 동무들은 욕심쟁이들 뿐이야.》 3반의 김 봉주 동무가 아쉬운듯 교실 바닥을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창이나 닦자!》 용훈이의 이 말에 분단 동무들은 모두 팔을 걷고 달라 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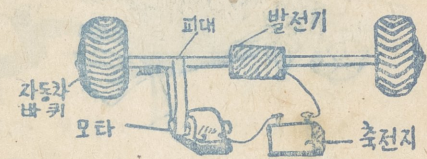
이윽고 1반 동무들이 헐레벌떡 뛰여 왔습니다. 《준비하자!》, 《항상 준비!》 날마다 만나는 동무들이지만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즐거움과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정답게 만납니다.

《체육 경기를 하자!》 아이들의 환성이 터졌습니다.

반별 체육 경기는 재미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랭수 마찰을 시작한 이들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체육 선수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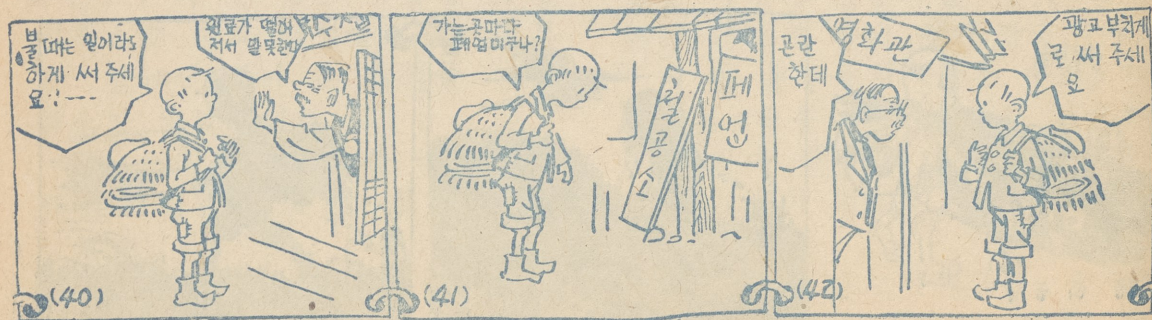
◇ 생각해 보세요 ◇

휘발유 없이 가는 자동차?!

그림과 같이 자동차 바퀴 축에 발전기와 전동기(모타)를 달았다.

자동차가 달릴 때 발전기는 돌아 가며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생긴 전기를 전동기에 공급하면 자동차는 휘발유 없이도 계속 달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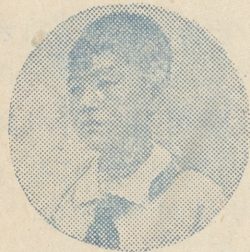
동무들이 물리에서 배운 법칙을 리용하여 연구하고 알아마쳐 보십시오.

오늘도 경암산에 올라 가 피리를 불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이들은 또 무슨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가요.

항상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을 따라 배우며 생활하는 이들 64 명의 분단 동무들의 《붉은 수첩》은 그들의 붉은 마음과 함께 자라, 날을 따라 두터워 가고 있습니다.

《소년단》 편집부는 이번 호부터 《붉은 등록장》 이란 란을 정하였습니다.

이 《붉은 등록장》에는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 결정 실행과 조선 소년단 창립 15주년을 맞으며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실천하는 데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소개합니다

각지 학교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모범적인 동무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 주기 바랍니다.

학교 물건을 내것처럼

이 동무는 황남 삼천군 삼천 중학교 단 11분단 최 정범 동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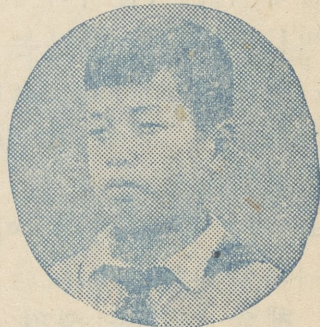
정범동무는 항상 학교의 물건과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가 금년에 학교의 책상, 평행봉, 륙목 등을 손질해 놓은 것만 해도 120 여 개나 되지요.

정범 동무는 항상 분단 동무들과 어린 동생들에게 국가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모범을 보인 자강도 강계 중학교 단 김 경섭동무의 모범을 따르도록 이야기 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이지요

어느 일요일 날 아침 정범 동무는 라지오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된다는 기상 예보를 듣자 학교에 뛰여 나와 창문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날 정범 동무는 집에 가서 창문에 댈 가름'대를 만들어다가 대였습니다.

분단의 《영예의 붉은 수첩》 에는 정범 동무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130 가지나 씌여 있답니다.

어린 독서가

이 동무는 누구일가요.

한해 동안에 180 여 권의 책들을 읽은 황남 송화군 다암 중학교 인민반 4학년 리 기수 동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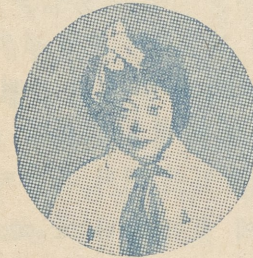
기수 동무는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지정 독서로 정한 《어린 혁명 전사들》,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을 네 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리고 《만경대》, 《아동단》, 《력사》, 《나는 다시 강을 건너 간다.》 등도 읽었지요.

기수 동무는 읽은 책 내용을 동무들에게 자주 이야기 해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수동무는 읽은 책의 주인공들 처럼 행동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기수동무는 6반 동무들이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를 학습하는 것을 방조하여 줄 과업을 맡았습니다. 비는 나리고 밤은 어두웠습니다. 기수 동무는 《어린 혁명 전사들》 이란 책에서 읽은 세 아동단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직이 준 위임을 수행한 광춘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춘이 처럼 조직이 준 위임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몇번이고 다짐한 기수 동무는 비가 오는 데도 무릅쓰고 6반 동무들을 찾아가 그들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때문에 이 동무는 동무들 속에서 아주 신망이 높지요.

동무에 대한 뜨거운 사랑

단 기'발 앞에서 사진을 촬영할 영예를 지닌 이 동무는 함남 함흥시 룡성 구역 풍동 중학교 제 11 분단 김 정애 동무입니다.

정애 동무는 누구보다 동무를 아끼고 돕고 사랑하여 항상 동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한 며칠 후 분단에 한 정숙이라는 동무가 전학하여 왔습니다.

정숙이는 어쩐지 자주 지각과 결석을 하였고 숙제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무들 속에 잘 끼여 놀려고 하지 않고 매일 우울하게 보내였습니다.

정애는 정숙이를 도와 나섰습니다. 표지가 낡은 그의 교과서에 새로 표지도 해 씌워 주었고 떨어져 없어진 학습장을 함께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한책상에 앉은 정애는 저녁이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정숙이네 집에 찾아 가서 공부도 함께 했고 집 일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어린 혁명 전사들》 등의 책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올 때도 정애는 정숙이네 집에 들려 함께 학교에 오군하였습니다.

정애는 이렇게 녁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도왔습니다.

정숙이는 어려운 산수 문제도 자기 힘으로 풀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정애의 꾸준한 도움으로 최우등생이 된 정숙이는 소년단 생활에서도 누구보다 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명랑해졌는지 모릅니다. 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랑독을 잘하여 동무들은 지금 그를 《꼬마 시인》 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동무를 돕고 이끄는 《모범 분단》 위원장인 정애는 분단의 어머니로 동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례절 밝은 옥선동무

다정히 허리를 굽혀 늙은이에게 인사하는 동무는 누구일가요?

마을의 로인들과 웃어른들에게 만날 때 마다 꼭꼭 인사를 하는 황남 신천군 명석 중학교 단 4 분단 조 옥선동무입니다.

지금 옥선동무는 오늘도 세번째나 만나는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옥선 동무가 리야까를 끌고 백석에 게시는 외할머니네 집으로 가던 때 일이였습니다. 나드리로 떠난 할머니 한분이 발목을 곱덛어 잘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옥선 동무는 할머니를 리야까에 앉히여 10리나 되는 재령읍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야 외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월 도 흥

그림 김 항 진

(전호에서 계속)

일본놈들은 리가놈을 앞세우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 갔다. 날이 저물었다. 그러나 놈들은 계속 강행군을 하여 산 속으로 들어 갔다.

하사관놈은 광복이에게 제일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다. 광복이는 어깨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러나 앞에 김 영 아저씨를 모시고 가니 한결 마음이 놓이고 짐도 가벼운듯 하였다.

김 영 아저씨는 하나도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없이 앞에 서서 걷고 있었다. 광산 로동에서 오래'동안 단련된 그는 맨 앞에 서서 길 안내를 하고 있는 리가놈과 그 뒤 따르는 장교놈의 행동을 살피면서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였다.

리가놈은 유격대의 활동을 탐지해 내기 위해서 어찌나 산판을 싸다니였는지 마치 날파람'군 모양으로 몸을 날리며 산을 타고 넘었다. 그놈은 산마루를 넘을 때마다 《토벌대》 대장놈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고는 다시 또 앞장 서 나아 갔다. 이것을 보는 김 영 아저씨는

(상전 앞에서 저렇게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니 저놈이 틀림 없이 우리 유격대가 있는 곳을 냄새 맡았구나)

하고 놈들을 따라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토벌대》 대장네 집에서 심부름'군 노릇을 하는 아동단원에게서 일본놈이 갑자기 《토벌》을 떠난다는 보고를 듣고 김 영 아저씨는 필시 이놈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 길로 달려가 놈들의 짐을 지고 따라 왔던 것이다.

산마루에 물들었던 저녁 노을도 사라지고 검은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잣나무, 봇나무, 분비나무, 참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찬 골짜기에는 먹장 같은 어둠이 뒤덮이기 시작하였다.

리가놈이 오늘 아침 유격대의 초막을 발견한 령마루에 올라 섰을 때는 아주 캄캄하였다. 그는 나는듯이 령마루 우에 게바라 오르자 먼저 유격대의 초막이 있는 곳을 보았다. 멀리 바라 보이는 시꺼먼 산발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였다.

《저겁니다》

리가놈은 뒤따라 올라 온 대장을 돌아보며 불빛을 가리켰다.

《요씨!》(됐다)

대장은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버릇처럼 망원경을 눈에 대였다.

대렬이 령마루에 올라 와 걸음을 멈추었다. 맨 선참에 서서 짐을 지고 올라 온 김 영 아저씨는 놈들이 가리키는 불빛을 보고

(이놈들이 여길 노리고 왔구나)

하고 왜놈 장교에게 뭣인가 귀뜸을 하고 있는 리가놈을 쏘아 보았다.

리가놈의 입에 귀를 대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교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돌았다. 그는 연송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뭣인가 쑤군거리고 있는 두 놈을 노려보고 있던 김 영 아저씨는

《흥 네 놈들이 얼마 동안이나 웃나 보자.》

하고 속으로 코'방귀를 꾸고 멀리 바라 보이는 조그마한 불빛을 내려다 보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였다.

령마루에 올라 서서 놈들이 가리키는 불빛을 본 순간 광복이도 그것이 유격대들이 지핀 불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불빛을 보자 옆에서 있는 김 영 아저씨를 쳐다 보았다. 무슨 생각에 잠겨 불빛을 바라보고 서 있던 아저씨도 광복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저씨는 광복에게 뭣인가 이야기를 할듯할듯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하사관놈을 보고 고개를 돌리였다. 그는 어떻게서든지 광복이를 몰래 빼 돌려 《토벌대》놈들이 왔다는 것을 유격대에 미리 알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유격대들이 선손을 써서 《토벌대》놈들을 깜쪽 같이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놈들의 경계가 심하여 그것이 안될 때에는 놈들에게 희생될지언정 놈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큰 소리로 놈들이 온 것을 알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에게는 바늘끝만큼이라도 손실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하사관놈이 와서 모두 상자를 내려 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자를 뜯어 탄약들을 꺼내 모두 졸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놈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대장놈이 일본도를 빼들고 훈시까지 하였다. 놈들은 유격대를 깜쪽 같이 포위하고 칠 계획이였다.

무시무시하게 무장을 한 놈들이 불빛을 향해 떠났다. 령마루에는 짐을 지고 온 사람들과 그들을 지키고 있을 하사관놈과 리가놈이 남았다. 전투 부대가 떠나자 하사관놈은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을 돌려 세우고 산 밑으로 내리 몰았다. 거기에서는 멀리 바라보이던 불'빛도 볼 수 없었다.

《너희들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꼼짝 말고 가만 있어라, 자도 좋다.》

하사관놈은 령마루에서 한 30~40 메터 내려 온 풀밭에 사람들을 모여 앉히고 호령을 하였다.

무거운 탄약짐을 지고 현 소재지에서 여기까지 한 60~70리나 되는 험한 산'길을 넘어 온 부락민들은 자도 좋다는 말에 모두 길게 누워 눈을 붙이였다. 어떤 사람은 눕자마자 코를 골았다.

하사관놈과 리가놈은 풀밭에 누운 사람들의 머리맡에 서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이는 무시무시하게 무장을 한 왜놈들에게 우리 유격대 아저씨들이 포위 당하고 기습 당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잠들 수가 없었다. 그는 안타깝기만 하였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맡에서 지키고 있는 두 놈 때문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가슴만 태우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잠꼬대를 하는척 하면서 모로 돌아 누워 김 영 아저씨를 훔쳐 보았다.

김 영 아저씨는 눈을 감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자는듯 하였다. 그러나 그도 머리맡에 서 있는 두 놈의 동정을 살피며 놈들을 까눕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시간은 자꾸만 흘렀다. 《토벌대》놈들은 유격대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 갔다. 김 영 아저씨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을 개시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때마침 하사관놈이 다 잠든 줄 알았는지 뒤로 돌아서서 령마루 우로 올라 갔다. 리가놈도 그 뒤를 따랐다.

두 놈이 령마루로 올라 가는 것을 본 광복이는 옆에 누워 있는 김 영 아저씨의 곁으로 바싹 다가 붙으며

《아저씨!》

하고 애원하는듯한 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광복이냐 너두 깨 있었니?》

아저씨도 광복이를 향해 돌아 누웠다.

《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거면 좋아요?》

《빨리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알려야지, 그런데 이전 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광복아 너도 저놈들에게 눈치 채이지 않게 네 옆에 있는 마른 가래기들을 모아라 그래서 불을 놓자, 그러면 유격대들이 우리 불'빛을 보고 사태를 짐작할거다.》

광복이는 《불을 놓자》는 말을 듣고 안타깝기만 하던 가슴이 탁 풀리였다. 왜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역시 지하 공작원인 김 영 아저씨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령마루에 서서 저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두 놈의 그림자를 살피면서 살근살근 나무 가래기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였다. 여름 철이 되여 마른 나무 가래기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둘이서 긴장해서 모으니 잠시 동안에 한 무더기가 되였다.

《자 이만하면 됐다. 이전 너는 저 사람들 속에 들어 가 자는 척 하고 있어라.》

《아저씨 요것 가지구 돼요?》

《되구 말구 어서 걱정 말구 빨리 저쪽에 가 누워라.》

김 영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놓고 웃저고리를 벗었다. 그동안 《토벌대》놈들이 유격대들이 있는 곳으로 매우 접근해 갔으리라고 생각하니 가래기를 모으느라고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 옷을 벗어 태울려고 하였다.

광복이는 김 영 아저씨 옆을 떠나 자기 혼자 가 눕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같이 불을 놓아요.》

《그러지 말구 어서가 누워, 나도 불을 붙이구 가 누을테니까.》

김 영 아저씨는 광복이를 사람들 옆으로 보내고 나무가리에 성냥불을 그어 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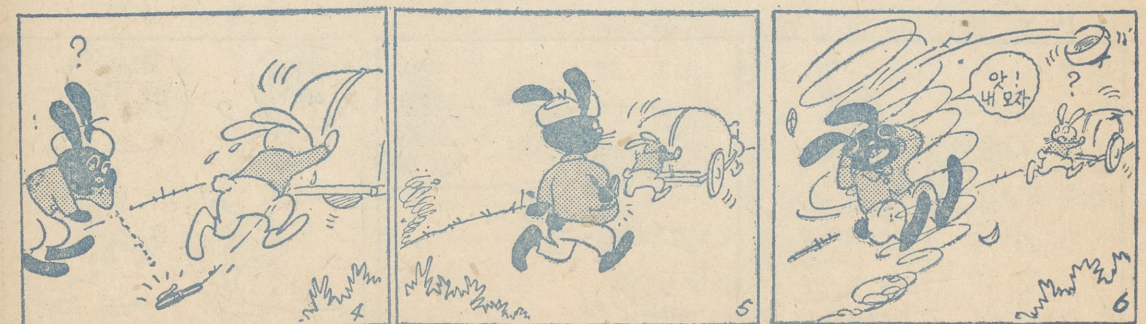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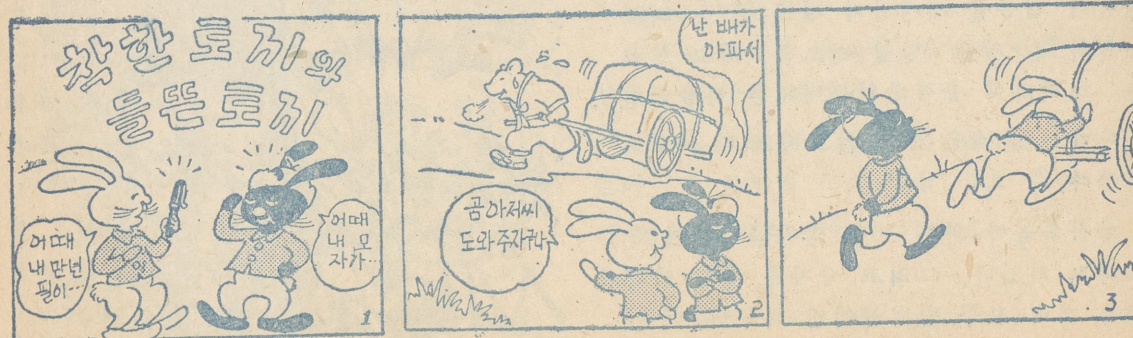
마른 나무 가리에 불이 확하고 당겼다. 캄캄하던 수림이 갑짜기 환해졌다. 불이 일자 김 영 아저씨가 벌떡 일어 섰다. 빨간 불'빛이 웃동을 벗은 그의 상 반신을 벌겋게 물드리였다. 그는 일어나자 손에 쥐고 있던 저고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우에 대였다. 옷자락에 불'길이 당기였다. 사방이 더 환해졌다.

령마루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서 있던 두 놈이 질겁을 하며

《나니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위'돌이 굴듯이 밑으로 뛰여 내려 왔다. 그러나 김 영 아저씨는 불붙는 저고리를 쥐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두 놈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번개'불 같은 불이 번쩍거리였다.

아저씨는 두 놈이 달려 내려 오자 불에 휩싸인 저고리를 령마루를 향해 확 던지고 두 놈이 불을 끄지 못하게 그놈들을 두 손에 그러쥐였다.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난 이 광경을 본 광복이는 벌떡 일어나 두 놈과 맞결은 아저씨를 도우려고 달려 들었다. 두 놈의 멱다시를 그러쥐고 땅에 군 김 영 아저씨는 달려 들려는 광복이를 보고

《야 광복아 빨리 저 불을 가지고 산마루로 올라 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광복이는 산중턱에 떨어져 스러져 가는 불'길을 향해 올리 뛰였다.

이것을 본 하사관놈이 김 영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김 영 아저씨는 몸을 일으키며 광복이를 따라 가려는 하사관놈의 뒤'다리를 그러쥐였다.

광복이는 저고리를 집어 들고 령마루로 달려 올라 갔다. 급해난 하사관놈이 불을 들고 산마루로 달려 올라 가는 광복이를 겨누고 권총을 쏘았다. 그러나 광복이의 귀에는 권총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는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것을 느끼고 꼬꾸라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령마루로 뛰여 올라 가 있는 힘을 다하여

《왜놈 토벌대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불붙는 저고리를 하늘 높이 휘둘렀다. 그리고 그는 멀리 바라 보이던 불이 깜빡 꺼지는 것을 보며 땅에 쓰러졌다.

광복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동이 훤히 틀 때였다. 그는 눈을 뜨자 머리 우에 일본놈 아닌 누런 군복들을 입은 군대들을 보았다.

《야 광복아 어서 정신 차려라! 유격대 아저씨들이 널 찾아 왔다!》

광복이는 유격대 아저씨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나 그리던 유격대 아저씨들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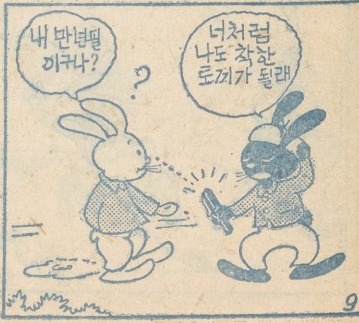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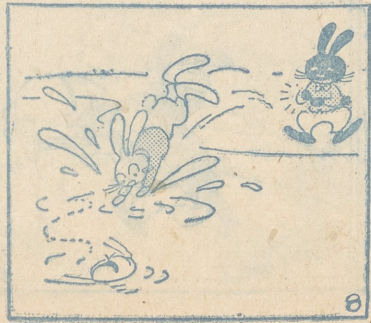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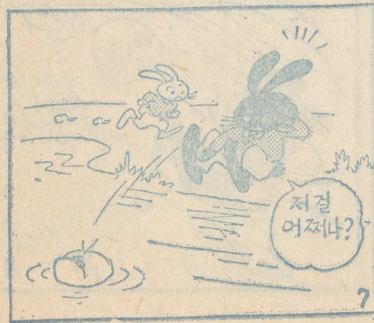
광복이는 김 영 아저씨 옆에 서 계시는 유격대 아저씨를 보고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지 알수가 없었다.

《광복아 우리는 너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네가 미워하는 일본놈들과 마름놈을 처단해 버렸다》

유격대 아저씨는 광복이의 눈물을 씻어주며 사랑스러운듯이 그를 껴안아 주었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산속에 초막을 치고 있던 유격대원들은 광복이가 휘두른 신호'불을 보고 산에 올라 왜놈들을 역습을 하여 모조리 처부시였던 것이다.

끝

동 요

학교에 가기 전에

꼬끼요 꼬끼요 첫 닭이 울 때면
나는요 일어나 아침 체조하지요.

어머님 밥 짓기에 바쁘실 때면
나도요 분주히 청소를 해요.

아침 해'님 방긋방긋 웃을 때면은
나는요 강'가에 세수하려 가지요.

혁명 가요 부르며 강'가에서 돌아 와
오늘 배울 학습 준비 하지요.

아빠 엄마 공장으로 일하려 갈 때면
나도요 학교로 달음쳐 가요.

평남도 양덕군 상신 인민 학교
제 4학년
리 창 녀

풍년의 기쁨

우리 나라 농촌 마을은 그 어디나 다 그런것 처럼 금년에도 대 풍작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상 해마다 젊어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리우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른 봄부터 당에서 내놓은 100 만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을 까고 강바닥 흙을 파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몸을 념려하여 집에서 쉬라고 하여도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어찌 앉아서 세월을 보내겠나, 당에서 하자고 하는 100 만톤 증산에 나도 한몫 끼여야지.》하며 농사일의 앞장에 섰습니다. 이리하여 금년에 할아버지가 일하는 제 4 작업반에서만 해도 5 정보의 새 땅을 일쿠었고 비료는 쌀더미라는 당의 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논마다 자급 비료 30 톤과 화학 비료 350 kg 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0 % 이상 랭상모를 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제 때 같으면 겨우 정당 2 톤 밖에 내지 못하던 땅에서 6 톤의 놀라운 수확을 냈습니다.

이 마을에서 환갑이 지나도록 살아 오시지만 할아버지는 금년과 같은 대 풍년은 난생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김 일성 원수님의 청산리 교시대로 모든 논에 랭상모를 내고 비료를 많이 주고 농사일에 있는 힘을 다 한 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의 생활은 해마다 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금년에도 150 여 가

마니의 쌀과 300 여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올해 재봉침을 사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기뻐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가 생각 나군 합니다.

왜정 때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 집 땅을 소작하였는데 한번은 물세를 물지 못한 《죄》로 순사놈의 발'길에 채워 물에 빠졌다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답니다.

이런 옛'일을 새각하시며 할아버지는 (이 좋은 세월에 내가 어찌 늙었다고 집안에 앉아 있겠니, 농사 일에 머리가 휜 난데…)하시며 늘 어머니 보다 선참으로 논으로 나가시군 하시지요.

벌써 할아버지는 당이 내 놓은 명년도 알곡 500 만톤 고지 점령에서 정당 6.5 톤의 알곡을 내겠다고 하시면서 50 톤의 자급 비료를 장만하시였습니다.

황남 신천군 명석 중학교

주 의 호

이것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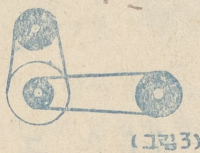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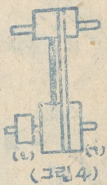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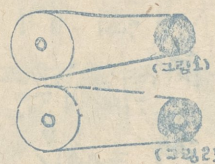
피대 장치

피대는 전동기의 힘을 기계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피대를 장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무들의 실습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아래에 소개한다.

그림 1은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 가게 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림 2는 두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가게 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림 3은 피대가 도는 방향을 각이 나게 (90°도) 바꿀 때 쓰는 방법이다.

그림 4는 기계를 자주 세웠다가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바퀴 ㄴ은 공회전 하게 되여 있어 기계를 세울 때는 바퀴 ㄱ에서 피대를 바퀴 ㄴ으로 옮겨 놓는다.

그림 5는 크고 작은 두 바퀴가 멀리 떨어져 있어 피대가 늘어 질 때 피대를 팽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때 작은 바퀴 ㄷ은 피대를 팽팽하게 하는 바퀴이다.

△ 과학 환상 소설 △

보물의 세계를 찾아서

김 동 섭　　그림 양 재 혁

1), 대담한 생각

푸른 사과 알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 한복판으로 언덕'길이 곧게 뻗어 있었다.

버섯 같은 흰 구름이 두둥실 떠 돌고 있는 아침 하늘에선 해'님이 눈 부시게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나무 잎에 방울방울 맺힌 아침 이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산듯한 흰 샤쯔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똑 같은 등산모까지 쓴 네 명의 소년단원들이 앞 서거니 뒤 서거니 서로 언덕을 향하여 달려 가고 있었다.

《야아 좋구나!》선참으로 언덕에 오른 정남이가 모자를 벗어 들며 웨쳤다. 앞이 탁 트인 골짜기에는 맑은 시내'물이 졸졸 흘러 내렸다. 멀리 시내'물 기슭엔 샛하얗게 회칠을 한 건물 두채가 숲 사이로 바라보인다. 넓은 그 앞들엔 마치 무슨 괴물 같은 검은 물건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다.

《저기 보인다!》

뒤 따라 오른 연희가 기쁨에 찬 소리를 지르며 멀리 검은 괴물을 가리켰다.

흥분된 그들은 이마에 솟아난 땀 방울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감격 어린 눈초리로 멀리 바라 보고 있었다.

시내'물을 타고 넘어 온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두 뺨을 다정스레 어루만지면서 스쳐 지나 갔다.

도리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격스러웠다. 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지난 가을 어느 날이였다. 선생님에게서 우리 나라에는 유용 광물이 150 가지 이상이나 있고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희유 광물들도 많이 파묻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얘 정남아 우리 한 번 땅 속으로 려행을 다녀 보지 않겠니?》

그날 방과후 광물 표본실을 꾸리다가 종철이가 난 데 없는 이런 말을 내 놓았다.

《땅 속으로?》정남이는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놀라기까지 하였다.

《응, 땅 속으로 말이야 다른 크루쇼크들을 보려무나, 생물 크루쇼크에선 토끼도 기르고 온실도 가꾸지, 기계 크루쇼크에선 끄마 선반으로 조그만 기계들까지 만들어 내지. 그 뿐이야 화학 크루쇼크에선 농약도 만들고 사진기도 다루지, 이렇게 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가는데 우리 지질 크루쇼크에선 산에나 가서 돌이나 주어 오고 밤 낮 여기 앉아서 표본이나 주무르고 있으면 뭘해,

나는 대담하게 수 천길 땅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광물들을 모조리 찾아 내고 싶어.》

《그렇지만 어떻게 땅 속을 돌아 다닌단 말이니? 하긴 두더지나 됐으면 몰라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깔깔 웃으며 연

희가 말했다.

《땅 속으로 다닐 수 있는 특수한 수레를 만들지.》종철이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였다.

《얘 그런 정신 나간 소린 그만둬, 탐사대 아저씨들도 그렇게 못하는데…》이번에는 혜선이도 말 참견을 하였다.

《탐사대 아저씨들은 땅 우에 가만히 앉아서도 땅 속을 훤히 드려다 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깐 그렇지 뭐 허지만 그 기계도 수 백길 땅 속 밖에 알지 못한대 그러니 더 깊은 곳에 어떤 신기한 것들이 있을런지 누가 알어?》

종철이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자

《정말 그래 깊은 땅 속에 한번 들어 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직도 깊은 땅 속에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많다고 선생님이 말씀 하시지 않았니.》

연희도 정색하면서 말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하자면 우선 기계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철과 그리고 동 아연 등 유색 금속과 아주 많은 석탄이 든다고 했어》 혜선이도 동그란 눈을 귀엽게 굴리면서 말하였다.

《옳아 그러기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금은 보화 가득찬 우리 나라라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원을 알아 내서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특수한 수레라? 그걸 어떻게 만든담?》

잠잫고 있던 정남이가 고개를 기웃 거리며 동무들을 바라보았다.

《될 수 있어 두더지란 놈이 어떻게 땅 속을 파 헤치고 다닐 수 있겠어. 그 방법을 본따서 우리도 땅 속으로 다니는 수레를 만들 수 있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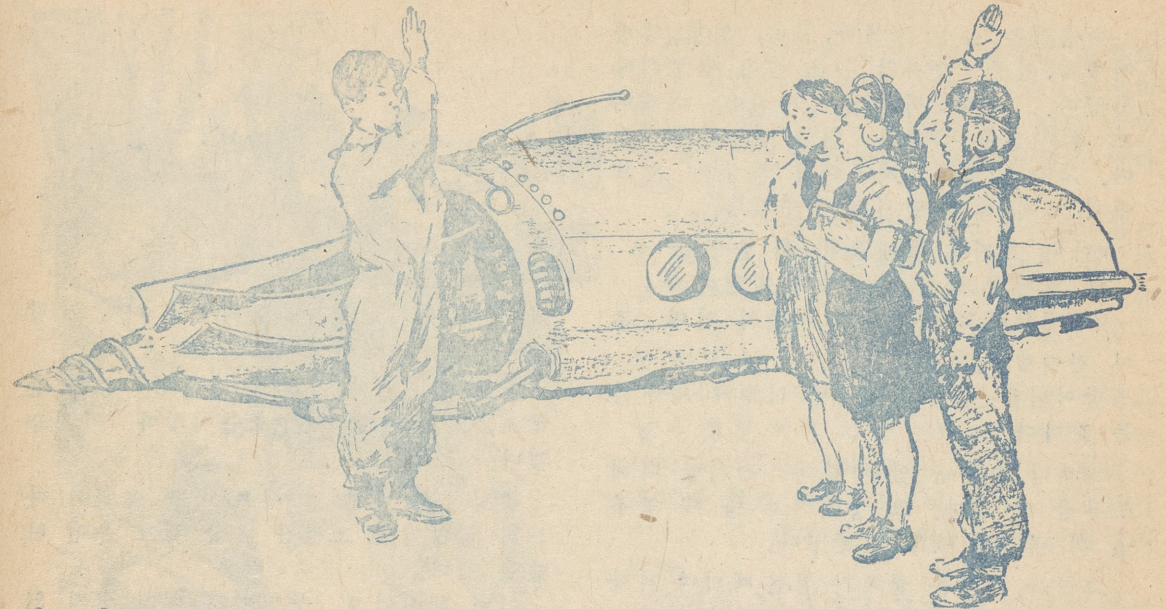
종철이는 손 시늉까지 해 가면서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이였다.

《그거 참 그럴듯도 하구나!》

혜선이와 연희도 고개를 끄덕 거렸다.

그리하여 네 동무는 즉시 선생님을 찾아 갔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님은 만족한 웃음을 띄우시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날아 다니는

새를 흉내 내여 비행기를 만들었고 헤염쳐 다니는 고기를 모방해서 노와 키를 만들어 배를 저었습니다. 종철 동무의 생각은 참 훌륭해요.》하고 칭찬하시더니 아마 퍽 어렵겠지만 한번 소원대로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다.

우선 설계하는 것 부터가 힘에 겨운 일이였다. 그래서 소년단원들은 설계 연구소에 찾아 갔다.

그들은 거기서 우수한 기사 아저씨를 만났다. 그 분은 승용차, 지질 탐사차, 수중 날개선 등을 설계한 유명한 박 선생이였다.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퍽 기특해 하시면서

《가만있자 땅 속으로 다니고 싶다지요? 그럼 좋은 수가 있소, 고주파를 리용한 착공기를 만들어 봅시다. 고주파 발생기를 들여대면 아무리 단단한 화강석도 모두 가루가 되여 버릴테니깐 그 다음에 회리 날개를 달아서 가루들을 모두 뒤로 날려 보내면 되지요.》하고 말하였다.

소년들은 그만 너무 기뻐서 아저씨의 어깨에 매달려 껑충껑충 뛰였다.

연구소 아저씨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가며 어려운 설계를 끝냈다.

지금까지 어떤 지질 탐사용 수레에도 없는 새롭고 훌륭한 기계들이 장치되였다. 고주파 착공기, 성분 분석기, 공기 청정 장치 (공기를 맑게 하는 장치), 천연색 탐사용 테레비존, 지하용 무전기, 그리고 만능 기계 손…

정말 설계도만 보아도 굉장한 기계였다.

신이 난 지질 크루쇼크원들은 기계 크루쇼크원들과 함께 수레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찬 비 쏟아지는 긴긴 가을 밤에도 회오리 바람 윙윙 눈보라 이는 추운 겨울날에도 실습 공장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오르고 깊은 야밤에도 용접 불꽃이 번개불 처럼 골짜기를 밝히군 하였다.

그들이 땅 속 수레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기계 공장 아버지들과 지질 탐사대 아저씨들은 퍽 기뻐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년단원들이 만들기 어려운 부속품은 공장 아버지들이 손수 만들어 주셨고 기술도 배워 주셨다. 탐사대 아저씨들은 수레에 갖출 신통한 자동 기계들을 구해다 주셨다.

이렇게 일곱 달에 걸친 노력 끝에 아담하고 멋진 수레가 생기게 되였다.

소년단원들은 오랜 토론 끝에 수레의 이름을 《두더지 수레》라고 지었다.

그러나 수레만 다 되였다고 해서 거칠고 어두운 땅 속으로 함부로 기여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였다.

다음에는 조선 지리학, 물리, 화학, 일반 지질학, 광물 탐사법 등을 깊이 연구해야 하였다.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다지며 또 다른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해야 했다. 그들은 밤을 새우다가 책상에 엎드린채 아침 해를 맞기가 일수였다.

《아니 요지음 그애들이 웬 일이요?
웬 갑자기 장원 급제라도 할려나.》

《장원급제도 좋지만 그애들이 어디 몸이 견디겠소.》

할머니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공부를 해 냈다. 그 중에서도 땅 속 공부를 해 내기가 제일 힘들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학원 지질 및 지질학 연구소를 찾아 갔다.

땅 우에 지리만 그린 지도도 보는 법을 배우기가 힘든데 게다가 깊이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지질 분포까지 그려 넣은 땅 속 지도는 정말 낯 익히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과학원 연구사 아저씨들은 그들이 찾아 가기만 하면 《앞날의 과학자들》이라고 칭찬하며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

다음에는 기계와 전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였다.

어떤 복잡하고 위험한 곳에서도 능숙하

게 수레의 기계들과 장치들을 다룰줄 알아야 했기 때문이였다.

일이 있으면 뻔질나게 과학원 공학 연구소, 물리 수학 연구소를 찾아 가기도 했다.

종철이는 밤에 잘 때도 이불 속에서 다드미 방망이를 조정간 대신 쥐고 운전련습을 했다.

어린 혜선이도 무전기가 손에 쉽게 익지 않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

게다가 그들은 체육까지 잘해 두어야만 했다. 널뛰기, 철봉, 재주 넘기, 그야말로 비행사 훈련에 못지 않았다.

정말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나날이 흘렀다.

드디여 기다리던 여름 방학이 왔다.

출발의 날이 가까워 온 것이다.

그들은 땅 속 지도도 제법 훌륭하게 만들어 내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였다.

바로 오늘 그들은 마지막으로 종합 훈련을 하려 나온 것이였다.

2, 두더지 수레

줄지어 늘어선 아까시야 나무를 울타리 삼아 시내'가에 자리 잡은 실습 공장의 넓은 앞 뜰에선 검실 검실한 몸을 해'빛에 반짝이면서 수레가 소년단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아까시야 꽃 향기를 그윽히 담아 안고 와선 수레의 조그맣고 동그란 창문 틈으로 스며 든다. 그 속에는 들장미의 달 콤한 향내도 섞여 있는듯 하였다.

크기가 그저 승용 자동차 만한 수레는 날개 접은 제비 마냥 날씬해 보였다. 앞머리에 기계 팔이 달려 있을뿐 몸체는 손하나 걸릴 데가 없으리 만큼 미끈해서 손으로 꼭 잡아도 쭉빠져 나갈 것만 같았다.

수레의 앞 머리엔 고래 눈 비슷한 동그란 창문이 두개 나 있었다.

얼핏 보면 두더지 발 같기도 하고 가재발 같기도 한 기계 팔 끝에는 동그런 주먹이 달려 있었다.

앞에는 고주파 착공기의 끌날이 두더지 주둥이 처럼 삐죽 나와 있었고 바로 그 뒤에는 비행기 푸로페라 비슷한 회리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 밖에도 훤한 불을 비쳐 주는 탐조등, 운전실에서 내다 보는 잠망경, 광물 성분 분석기의 흡수구, 조립식 안테나, 그밖에도 그냥 보기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스키, 스케트 만드는법과 타는법

간이 스케트 만드는 법

간이 스케트는 철을 불에 달궈 가지고 그림과 같이 만든다. 주의할 점은 스케트 앞 뒤'부분은 지칠 때 얼음에 걸리지 않도록 약간 구부린다.

스케트 타는 방법

처음 스케트를 타는 동무들은 2명씩 조를 지어 그림과 같이 몸의 균형을 잡는 동작을 련습한다.

이것이 끝나면 다리와 몸을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에서 량팔을 아래로 내리우고 스케트의 안쪽 날로 옆으로 벌려 옮겨 짚으면서 걸으며 또 옆으로 밀어 지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으면 한 다리에 몸을 싣고 길게 지쳐 나가는 동작을 연습한다.

활주 자세는 몸과 무릎을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짧은 거리를 지칠 때는 두 팔을 흔들면서 지치고 긴 거리를 지칠 때는 뒤짐지고 지친다.

스키 만드는 법

재료로서는 가래나무, 참나무, 아까시아나무, 벗나무가 좋다.

기리는 자기 키보다 10~20cm 더 길게 할것이며 앞 부분의 넓이는 6cm, 중간 부분은 4~4.5cm, 뒤'부분은 5cm로 한다. 두터이는 앞 부분은 0.7~0.8cm 중간부분은 1.2~1.5cm 뒤'부분은 1~1.2cm로 한다.

0.7-0.8cm 1.2-1.5cm 1-1.2cm 6cm 4-4.5cm 5cm

앞 부분을 휠 때는 끓는 더운 물에 30분 정도 넣었다가 꺼낸 후 불에 말리운다. 다음에는 스키를 그림과 같이 앞뒤 부분을 묶은 후 가운데 부분에 7~8cm 높이를 가진 나무 토막을 고이고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넣었다가 꺼낸후 불에 말리운다. 마지막으로 스키 중심부에 발을 놓는 고정판을 붙친다.

지팽이는 물프레 나무 참나무로하며 길이는 자기 겨드랑에 오게한다. 지팽이 끝엔 뾰족한 쇠를 박으며 끝부터 5cm 정도에 선륜을 단다.

스키 타는 법

1) 걷기 및 활주법

이것은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다리씩 앞으로 내 디디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이때 오른 발로 약간 앞으로 지치고 왼발로는 앞으로 밀어 준다. 다음은 왼발로 앞으로 지치고 오른 발로 앞으로 밀어 준다.

2) 내려 지치기

내려 지치기 자세는 두 스키를 평행되게 하고 무릎과 몸을 앞으로 굽히고 지팽이를 잡은 팔은 굽혀서 허리에 부치고 몸의 균형을 잡은 후 지친다. 지칠때 무릎을 긴장 시키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하며 언덕진 곳을 지날 때는 무릎을 더 굽히고 움푹 들어간 곳을 지날 때는 무릎을 좀 펴야한다.

평양 체육 대학 빙상 경기 강좌

수 많은 계기 장치들이 복잡하게 달려 있었다. 수레의 밑에는 열아문개나 되는 많은 바퀴들이 옹기종기 달라 붙어서 아무리 거치른 바탕이라도 쉽게 타고 넘어 갈 수 있게 되여 있었다.

소년단원들은 이미 훈련한 그대로 나란히 한 줄로 늘어 섰다. 정남이가 두어 걸름 앞에 나서자 그들은 서로 소년단 경례를 나누는 것이였다.

《운전수 준비 되였습니다.》맨 먼저 종철이가 크게 보고하였다.

《테레비존수도 준비되였습니다.》

연희도 랑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전수도 준비됐습니다.》 혜선이가 마지막에 씩씩하게 끝을 맺었다.

《좋소 출발 준비!》정남이는 제법 지휘관 답게 명령을 나리는 것이였다.

이윽고 그들은 웃 뚜껑을 열고 차례 차례 수레 속으로 들어 갔다.

요란한 발동기 소리가 마당을 들들 울리였다. 기계 팔이 한바탕 허공을 휘여 잡을 듯이 허우적댔다. 그러자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다.

수레는 몸을 바르르 떨면서 재주 넘기를 하듯이 꼬리를 벗썩 쳐들더니 뽀얀 먼지 기둥을 일쿠면서 삽시간에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마당에는 서너 아름되는 구멍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쏜살같이 땅 속 깊이 스며 들어 가는 통에 신'바람이 난 그들은 수레를 막몰아 대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얼마쯤이나 갔는지 제 정신을 차린 정남이는 지도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정남이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를 질렀다.

《아차 이거 큰 일 났구나!》

《무슨 일이 생겼니?》옆에서 테레비존을 준비하고 있던 연희가 물었다.

《땅 속 지도를 안 가지고 왔어 아까 선생님과 함께 보구나서 그만…》

정남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이걸 어쩌나!》연희와 혜선이는 그만 울'상이 되였다.

땅 속 지도 없이 전진하는 수레가 당장 이라도 굳은 바위에 부딛치거나 수 십길의 험한 낭떠어지를 만나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우기 화산의 불'덩어리 속에라도 기여 들어 간다면 수레도 사람도 모닥불 속에 든 나비 마냥 눈 깜박할 사이에 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일이였다.

《멈춰 세웠!》정남이는 명령했다.

금시에 발동기 소리가 멎고 수레는 가벼히 그 자리에 멎었다.

《왜 그래?》 신바람이 나서 운전하던 종철이가 볼멘 소리를 지르며 운전실에서 뛰여 나왔다.

《지도를 잊었어!》혜선이가 귀뜸 하자 《지도!》하고 깜짝 놀라 뛰였다.

정남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잘 살펴 보구서 떠나야 할 걸…》

《신 나는 바람에 너무 깊이 들어 왔으니 도루 되돌아 갈 수도 없구…》

그들은 자기들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뉘우쳤다.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땅속 수십길의 무시무시한 정적이 그들을 휩쌌다.

한편 그들이 훈련을 나간지 한참 후에야 땅 속 지도를 잊고 간 것을 알게된 선생님은 숨이 턱에 닿도록 실습 공장 뜰악까지 뛰여 왔으나 수레는 벌써 간데 온데 없고 시커먼 구멍만이 남아 있었다.

《얘들이 일을 저질렀구나!》선생님은 구멍에다 대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렀으나 메아리 소리 만이 맴돌아치고 대답 대신 어렴 풋한 발동기 소리만이 들릴락 말락 할 뿐이였다.

《어떻게 하면 얘들을 구원할 수 있을가?》선생님은 지도를 손에 움켜 잡은 채로 안절 부절하고 있었다.(다음호에 계속)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 – 박 응호
그림 – 최 순천

(72) 정치 위원은 문섭이를 아동단 중대 앞에서 높이 칭찬하고 이 사실을 김 일성 장군님께도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표창으로 작으마한 붉은 기'발 한 폭을 주었다. 이것은 김 일성 장군님의 지휘 밑에 어느 성시를 해방했을 때 휘날린 기'발이였다.

(73) 문섭이의 가슴은 감격으로 들끓었다. 그는 기'발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는 것이였다.

(74) 정찰에서 훌륭한 공훈을 세운 문섭이를 위하여 중대는 대 오락회를 조직하였다. 유격대 무도를 하며 돌아 가는 동무들을 보자 문섭이도 참을 수 없어 그 속으로 뛰여 들어 한바탕 춤을 추었다.

(75) 그날 밤 련대 지휘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였다. 여기에서는 지하 조직에서 보내 온 자료들과 특히는 문섭이가 정찰해 온 자료들이 근거한 작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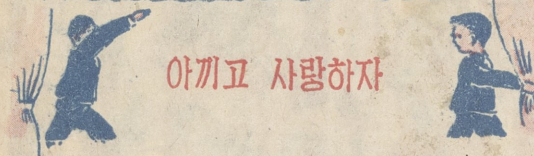
(76) 다음날 아침이였다. 문섭이는 풀발을 거닐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정치 위원에게로 찾아 갔다.

(77) 문섭이는 정치 위원에게 이번 전투에 자기를 길 안내로 뽑아 달라고 졸랐다. 정치 위원은 웃으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문섭이는 듣지 않았다. 아동단원들로 훌륭히 척후 임무를 해내겠다고 거듭 다짐해 나섰다. 하두 졸으는 바람에 정치 위원은 생각해 보겠노라고까지 말했다.

(78) 드디여 문섭이의 소원은 이루워졌다. 8명의 아동단원들에게 척후 임무가 떨어졌다. 아동단원들은 하늘에라도 오를듯 기뻐 날뛰였다. 척후대 대장은 다름 아닌 문섭이가 임명되였다.

(79) 출동 명령이 내렸다. 문섭이는 목동으로 가장한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유격대의 길 안내와 정찰을 맡아 떠나게 되였다. 정치 위원의 구체적인 과업을 맡은 아동단원들의 가슴은 높뛰였다.

(80) 어린 정찰병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떼를 지여 자치기를 하며, 잠자리를 잡는 등의 장난을 하는척 하며 사방을 살피며 섞시로 다가갔다.

(다음호에 계속)

김 영환

경호 (무대 오른 쪽에서 마치를 들고 나온다)

선일 (뒤따라 급히 나오며)얘 경호! 경호!

경호 (마치를 아래 호주머니에 쑥 밀어 넣고 핵 돌아 서며)넌 뭐가 바빠 이 야단이니?

선일 넌 또 왜 성부터 내며 그러니?

경호 나야 성미가 원래 그런걸 너두 알지 않니?
그런데 넌 새벽부터 왜그리 바빠 다니니?

선일 그런데 말이야 참 조화야

경호 조화라니?

선일 아 글쎄 못이 빠진 의자가 있어서 아침에 제꺽 고치려구 눈곱을 뜯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누가 해치웠단 말이야.

경호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나.

선일 그 휴지통두 말이야 누군지 먼저 깜쪽 같이 만들어다 놓지 않았니

경호 그렇지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으며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학습하면서부터 나날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지, 교실에 들어 서면 어제 없던 꽃병, 먼지털개, 칠판 지우개 등이 척척 생겨났지.

선일 (손'가락을 곱았다 폈다하다가)부지런한 동무들이야, 정말 그러니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는 조화가 아니고 뭐니?

경호 음, 정말 조화로다.

선일 하하! 이제야 알아 들었구나, 너희 할아버지가 지난 번에 우리 둘이서 남몰래 민주 선전실 의자를 고쳐 놓았을 때 《거 참 조화로다》이렇게 말씀하지 않던?

경호 하!(배를 그러 쥐고 웃는 바람에 마치가 떨어진다.)

선일 (눈이 둥그래지며)오라 네가 그러구두 아주 시치미를 딱 뗐구나 (경호를 붙들고)소년단원 동무들, 이 동무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경호 얘 애들이 많은데서 이게 무슨 짓이니.

선일 하! 재담인데 뭘 그러니.

경호 (따라 웃으며)참 우린 재담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소리로)그런데 말이야.

선일 (흠칫 놀란다)아니 내가 귀머거린 줄 알어?

경호 섭섭해 말어, 친한 동무야(연필을 꺼내서)사실은 이 연필 임자를 찾아야겠는데…

선일 그건! (연필을 보며 흠칫 놀란다)

경호 왜 네거니?

선일 (돌아 서서 몇 발자국 나가며)아니야,

경호 알만해 네가 어제 아침에 교실 책상을 반들반들하게 먹칠해 놓았구나.

선일 우리 반 동무들과 함께 했는데 뭘 그래.

경호 좋은 일을 한건 아름다운데 경각성이 무던게 탈이야.

선일 아니 내가 경각성이 무디다구?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경호 연필을 왜 함부로 버리느냐 말이야 연필 한 토막도 아껴 쓰자고 하지 않았니.

선일 알만해 그건 내가 실수해서 떨군건데 뭘 그러니

경호 그렇다면 좋아, 우리 분단 동무들의 마음은 정말 몰라 보게 아름다와지고 있어.

선일 정말 그래 그러기에 요지음엔 교실마다 척 들어만 서면 책상들이 모두 쌔물쌔물 웃으며 반가와하거든.

경호 그렇지 그전에야 교실에 들어 서면 (입술을 삐죽히 내 밀며)이렇게 성내는 책상 걸상이 더러 있었지.

선일 네 말이 옳아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으며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모두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거든.

경호 어디 그뿐이니, 제 4차 당 대회 문헌을 학습하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 이젠 그전처럼 연필이나 학습장을 다 쓰지도 않고 버리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지구.

선일 너처럼 글씨가 좀 잘 못 되여도 쭉 찢어 버리는 애들두 없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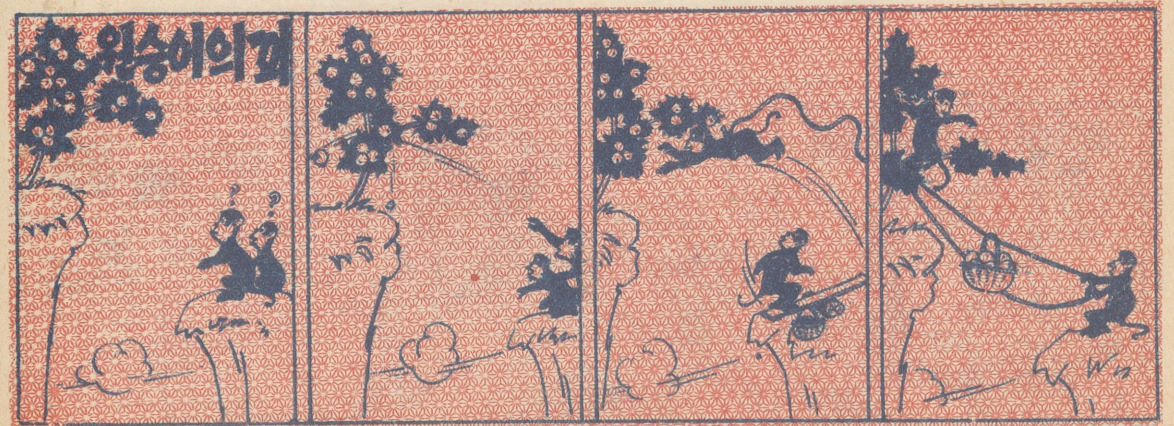
경호 얜 또?

선일 하하! 다 옛말이야, 자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마을도 청소하자꾸나.

경호 그래 그만하자 우리 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길 다 하자면 끝이 있니. (돌아 서서 나간다)

선일 경호야 재담을 했으니 인사를 해야지 않겠니.

경호 응 그래 성미가 이렇게 급해서 또 실수할번 했구나.

△ 경호 선일 인사하고 퇴장.

(동시)

새로선 발전소

두메'산'골 우리 마을에
새로 선 꼬마 발전소는요
졸졸졸 골짝 샘물
모여서 되였지요.

숙제 공부 끝내고
앞 마당에 나서면
반짝반짝 전등불이
집집마다 빛나고요

반 동무들 저마다
만든 스피카에선요
새 소식과 노래'소리
울려 퍼져요.

빙글빙글 물레방아
보낸 전기로
꼬마 공장 모타는요 윙윙 돌지요
우리 솜씨 자랑하듯 잘도 돌지요.

자강도 화평군 회중 중학교
3학년 오 병철

(동요)

탈곡기는 노래해요.

와롱 와롱 탈곡기
황금'벼를 쌓아요
만풍년을 노래하며
와롱와롱 돌아가요

원수님이 다녀가신
행복한 우리 마을
와롱와롱 황금 벼
산더미로 쌓여요.

와롱와롱 탈곡기는
쉴새 없이 노래해요.
만풍년을 가져다 준
로동당을 노래해요.

함북 길주 중학교
2학년
리 승일

속담 풀이

① 주머구구에 박 터진다.
무계획적으로 하면 일이 나중에는 실패를 가져 온다는 말.

②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지나친 제 자랑을 말리는 말.

③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꾸준한 노력은 발전을 가져오고 노력하지 않음은 퇴보를 가져 온다는 말.

④ 두 손벽이 맞아야 소리난다.
힘을 합해야 일이 잘된다는 말.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란 증기의 힘을 리용하여 타빈을 돌리고 그 타빈에 련결된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화력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에 비하여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열을 여러 방면에 쓸수 있다.(공장에서 직물을 말리운다던가 빵을 굽는데도 쓰며 주택의 난방, 목욕, 세탁하는 데도 쓸 수 있다)

둘째로 수력 발전소에 비하여 건설 기간이 짧고 자금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가물이 계속되는 갈수기에도 전력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 할 수 있다.

세째로 수력 발전소의 수력 타빈은 1분간 회전 속도가 100~1,0 00번인데 비하여 화력 발전소의 타빈은 1,500~2,000회이다.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한다.

네째로 수력 발전소 보다 인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즉 화력 발전소의 수원지는 수상 운수에 리용 될 뿐만 아니라 양어장 또는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터로 리용 될 수 있다. 화력 발전소에서 때고 난 석탄 재와 슬라그는 콩크리트 원료, 슬라그 벽돌등 건재품들을 만들 수 있으며 농촌의 토지 개량을 위한 비료로서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는 전력 공업 발전을 위해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화력 발전소 건설도 함께 촉진시키며 수력 발전소 건설과 화력 발전소 건설을 잘 배합하여 짧은 기한내 전력을 대량 생산 할 것을 제기하였다. 지금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대화력 발전소는 5만 킬로왓트의 최신 증기 타빈을 8대를 가지고 40만 킬로 왓트의 전력을 내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평양 시내 모든 공장 기업소와 주택들에 전력을 보내고도 남음이 있으며 매 가정에 이르기까지 증기 난방과 더운 물을 보내 줄 수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수풍 발전소 보다 더 큰 100만 킬로왓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북창대 화력 발전소도 건설한다.

생각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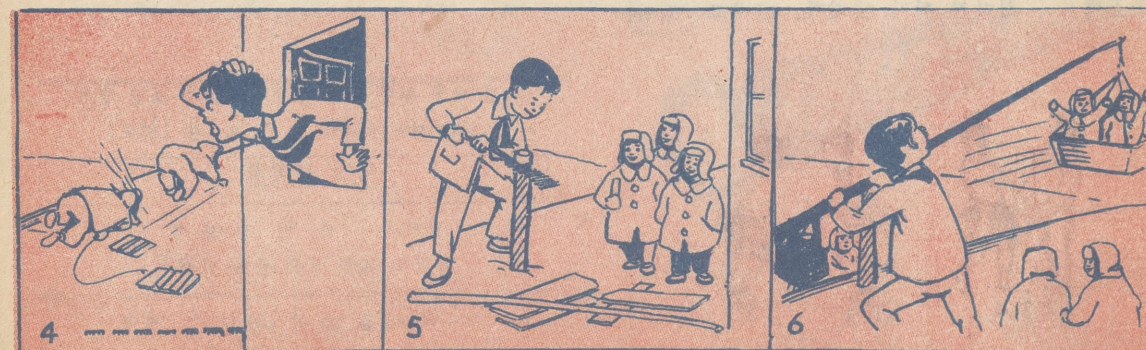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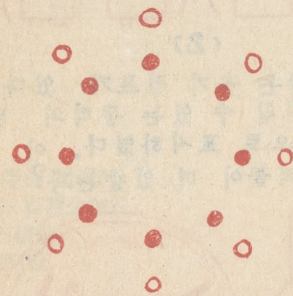
그림과 같이 정방형 웃 부분과 아래'부분에 나온 것은 아라비야 수자의 머리와 꼬리 부분들입니다. 그 수자들을 감한 것의 답이 34가 되였습니다.

정방형 안에 든 수자는 어떤 수자들이 겠습니까?

(2)

그림과 같은 공기 펌프가 있다. 이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의 몇 가지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이 밖에 어떠한 동력들이 더 있겠는가?

삐오넬가

1. 대상—인민반 초급반
2. 음악—삐오넬가

준비대형, 12명씩 원형을 만든다.

1~4소절. 2명이 서로 팔을 어깨 우에 엇걸어 올린다. 반대 팔을 옆에 올려 굽힌다.
오른 팔부터 가볍게 런닝 스뗍하여 뛰여 4호간에 오른발 발'굼치를 내여 들어서 가웃이 마주 보고 웃는다.

5~6소절
이상의 동작을 4번 반복한다.
2명이 마주 서서 팔 비껴 아래에 내리우고 오른쪽부터 가볍게 뛰면서 4호간에 동 뒤에서 손벽치며 왼다리 뒤에 엇건다. 반대로 한다.

현상 문제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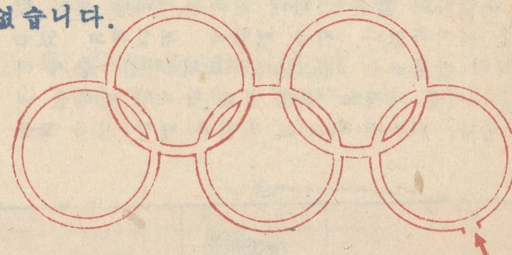
동무들은 어느 책에서인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 누가 쓴 글이며 누가 한 말입니까?

ㄱ.《…그 원쑤 놈들을 쳐부셔야 한다. 죽고 또 죽더라도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번에 돌아가서는 맡은 공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ㄴ.《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혁명의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라, 일어나 걸어 가라, 기여서라도 끝까지 가라…》

흥미 있는 오락

다섯개의 원이 그림과 같이 놓여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 첫 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을 그어 가며 5개의 원을 다 돌아 나오시요.

그어진 선은 매 원을 한바퀴씩 다 돌아야하며 한번 지나 간 곳은 다시 지나 갈 수 없습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11 호 (총 145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544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가면 만들기

순남이와 전기절약

카바이트란 무연탄과 석회를 전기로 구워 내는 것이다
전기를 절약하여 공장에 더 많이 보내야 갰군
1

우리가 만든 풍력 발전기로 실습공장을 돌려야지
2

1년동안에 전국적으로 전력을1%씩만 절약 한다면 그것으로 천을4억8천400만메터 짤수있으며, 화학비료를 23.600 톤을 생산할수있습니다

우리가 절약한 전기가 공장에 더 가겠구나
그거야 물론이지
3

아 저집에서 불을 켜고 자는구나 가서 끄라고 해야지
4

5

아저씨 외등이 켜저 있어요
6

이건 우리가 절약한 전기로 더 많이 생산한 것이다
우린 앞으로도 더 많이 전기를 절약하겠어요
7